즉시 배포용: 2026년 9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TRUMP 행정부에 경찰 예산 삭감 중단 및 뉴욕에 대한 대테러 예산 8,700만 달러 집행 촉구

Trump 행정부는 무책임하게 작년 뉴욕의 대테러 예산을 1억 8,700만 달러 삭감

Hochul 주지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Trump 대통령은 뉴욕의 예산 전면 복구 약속

*그러나 **Trump** 행정부가 복구한 예산은 **1**억 달러 뿐이며, 뉴욕의 필수 대테러 예산 **8,700**만 달러 미집행 상태*

해당 자금은 정보 작전, 교통 허브 안전 등을 비롯해 카운티, 보안관, 경찰청 장비 구매와 훈련, 대응 등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Trump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Markwayne Mullin 장관에게 뉴욕주에 미지급된 연방 예산 8,700만 달러를 집행하여 뉴욕의 대테러 예산을 전면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년 Trump 행정부는 뉴욕주 대테러 및 국토안보 예산은 86퍼센트 삭감했으며, 이는 1억 8,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Trump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며, 결국 대통령은 뉴욕주 예산 전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약 1년 동안 기다렸지만, 뉴욕주는 여전히 8,700만 달러의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주 전역에서 정보 작전 지원, 교통 허브 보안, 보안관 및 경찰서의 장비 마련, 훈련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Trump 행정부는 경찰 자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Trump 대통령과 Mullin 장관이 진정으로 공공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수작을 멈추고 필수 대테러 정책에 대한 자금을 완전 복구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연방 비상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국토안보보조금 프로그램(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 HSGP)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예방, 보호, 대응, 복구 역량의 유지와 개선에 필수적인 정보 작전, 대규모 행사 보안, 계획 수립, 장비 구매 및 훈련 등 지역 사법집행 기관의 활동과 지역 국토 안보 대비 노력을 지원합니다. HSGP는 9/11 발생 이후인 2003년 만들어졌으며, 주 국토안보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 SHSP), 도시 지역 보안

이니셔티브(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UASI), 오퍼레이션 스톤가든(Operation Stonegarden) 등 세 개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SP 및 UASI에 따라 예산의 80퍼센트는 지역 기관에 제공되고, 20퍼센트는 주 단위 프로젝트를 위해 남겨 놓습니다. 뉴욕주의 SHSP와 UASI 예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2025년 지연 기간이 늘어나면서, DHS는 2025년 HSGP 대상 자금 지원 통지(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for HSGP)를 통해 필수 자금 지원 기회를 주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러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예산은 40퍼센트(8,700만 달러)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지나 설명 없이 DHS의 2025년 9월 27일 보조금 시행에서 뉴욕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1억 달러 삭감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Trump 대통령은 2025년 10월 세 건의 삭감 모두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ruth Social에서 "뉴욕시와 뉴욕주의 국토안보 및 대테러 예산 삭감을 철회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뉴욕주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1억 달러만을 지급받았을 뿐, 여전히 8,700만 달러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특히 잔여 8,700만 달러의 집행은 다음의 항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NYPD의 정보 분석 및 태테러 유닛.
- FDNY 상호 운용 가능 소통 및 방사능 대응 역량 확보.
- 뉴욕 방위군(New York National Guard)의 교통 허브 배치에 필요한 Joint Task Force Empire Shield 운영.
- 뉴욕주의 12개 공인 폭탄 처리반 운영.
- 카운티와 보안관, 지역 경찰서의 장비 구매, 훈련, 작전, 대응 노력.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Terry O'Lear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상 대응 역량 확보와 대테러 활동에 기록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뉴욕주 혼자 이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대테러 노력 주정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 복구가 계속 지연된다면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비상관리청(New York City Emergency Management)의 Christina Farre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테러 활동은 우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정보와 훈련, 계획, 조정 등을 지원하여 시 전체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입증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정부 파트너들이 약속을 지켜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러 위협을 받는 곳이며, 지난 여름에 FIFA World Cup, International Naval Review, America 250 celebrations, New York Knicks 결승전과

퍼레이드 등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는 행사가 다수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전 및 보안 대책이 필요했고, 주정부과 시정부 공무원들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자금 전면 지원을 거부한다면, 향후 계획과 조정, 보안 등이 모두 어려워질 것입니다.

UASI 예산 삭감
뉴욕에서 UASI 예산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 관할지역에 한정됩니다. 이 자금은 대테러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의 유지와 개선에 사용됩니다. 예산 배정은 뉴욕의 Urban Area Working Group(UAWG)이 결정합니다. 해당 워킹그룹은 뉴욕시,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시, 뉴욕뉴저지 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등으로 구성됩니다.

UAWG 구성원 별 UASI 삭감 예상액:

용커스 시	-947,959달러
나소 카운티	-947,959달러
뉴욕시	-55,671,592달러
항만청(Port Authority)	-3,814,724달러
서퍽 카운티	-947,959달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947,959달러
합계	**-63,278,152달러**

SHSP 삭감
뉴욕에서 SHSP 예산은 모든 카운티와 뉴욕시가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구매하며 훈련과 기타 국토 안보 이니셔티브를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산 배정은 포뮬러를 기초로 진행되며 뉴욕주 모든 카운티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

이 그룹에서 탈퇴하고 이메일 수신을 중단하려면
press.release+unsubscribe@exec.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